

얼굴은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내 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삶에 거짓은 있을 수 없습니다.
먼 훗날 내 얼굴에 그려질 표정들이 따뜻하고 넉넉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큰스님 초청, 불기 2566년 송년법회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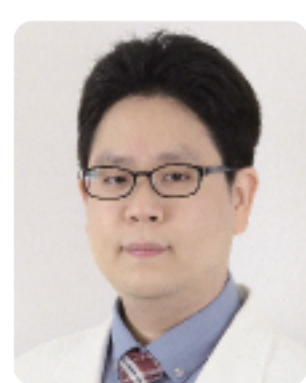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2월 21일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큰스님을 초청하여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힘찬 출발을 기원하는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송년법회는 약 3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하여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큰스님에게 설법을 청했다. 1부에서 성우 큰스님 설법과 올해 실행 활동이 우수한 교직원을 선발해 해외성지순례권을 수여했고, 2부에서는 2022년도 행운의 주인공을 뽑는 행운상을 추첨했다.

성우 큰스님은 “금빛 운명은 인간답게 살아야 의미가 있고 인연의 법칙에 따라 변한다”며 “여러분 운명은 여러분 손으로 금빛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금빛으로 만들 수 있어야 탄생한 의미가 있다”며 법문을 마쳤다. 채석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축사에서 “의료원 제2도약을 위해 신병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학과 이상헌 교수,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상헌 교수가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사업에 노고를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사업에서 손상 예방과 사회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는 응급실에 방문한 손상 환자의 손상 기원과 원인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고, 손상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상헌 교수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손상 상태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며, 손상 환자의 정보 및 위험 요인에 대해 충실히 정리하여 손상 예방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과 양지명 교수, 한국망막학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안과 양지명 교수가 12월 3일 그랜드 워커히 서울에서 열린 한국망막학회 총회 학술대회에서 동계심포지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양지명 교수 전임의 재직 시(지도교수: 서울아산병원 안과 김중곤 교수) 망막전막 수술 시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인 노출망막신경섬유층(bare RNFL)을 주제로 발표한 연구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했다.

2022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제주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2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구연발표와 포스터부분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총 5편의 구연 발표와 10편의 포스터 전시가 채택되었고, 이중 신생아중환자실 이정미 간호사가 발표한 ‘팬데믹 시대에 대응한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 구축 활동’이 구연발표 우수상을 받았다. 포스터 부분에서는 인공신장실 김희동 간호사의 ‘혈액투석 환자의 Standard Operating Protocol(SOP) 개발과 적용’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승철 PI 실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최근 의료계의 이슈되는 주제들을 파악하고 각 병원의 우수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의료 질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산장애 대응 도상훈련 시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2월 16일 4층 중강당에서 전산장애 발생 시 부서별 행동절차 수행에 대한 전산장애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재난대책 위원장 박현수 진료부원장, 재난 TF 팀장 응급의학과 이상헌 교수 등 관련 교직원이 참석하여 갑작스러운 네트워크 장애로 병원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했다.

전산비상대책위원회 소집, 재난지휘본부 설치 및 부서별 행동절차 등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현수 재난대책 위원장은 “이번 훈련은 전산장애 발생 시 부서별 세부 대응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의무기록 작성 우수과, 우수의 시상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12월 19일 의무기록 작성 우수과와 우수의를 선정해 시상했다.

2022년도 의무기록 우수 진료과는 흉부외과가 선정됐으며, 우수의는 산부인과 김은정, 안과 이수민, 비뇨의학과 최윤희, 이비인후과 오협전공의가 각각 선정됐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우수의는 한방재활의학과 조민진, 한방내과 박지윤 전공의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